백인이 아닌 스웨덴인으로 사는 것
스웨덴의 일상적 인종차별에 대한 입양인, 입양 부모와의 대화

토비아스 휘비네트(Tobias Hübinette)

논문 요약: 본 연구는 20 명의 유색 입양인과 8 명의 백인 입양부모와의 인터뷰를 분석한 것이며다. 이 연구는 백인이 아닌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입양인들의 일상에 있어 중요한 부분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스웨덴 유색 입양인의 심리적 질환과 자살의 높은 빈도수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인종 문제가 입양 공동체와 입양에 대한 연구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주장하고 있다. 키워드: 입양인, 입양부모, 스웨덴, 인종, 인종차별. 본 연구는 스웨덴 노동사회연구협의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국제사회에서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사회정의나 성적 평등이 실현된 곳, 反인종차별 혹은 인종차별적인 단계를 넘어선 인권의 천국으로 여겨진다. 인종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 규범이며, 인종 자체가 이미 관련이 없거나 구시대적인 개념이자 범주가 되었다(Schough 2008). 그러나 최근 비판적 이민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스웨덴이 제 3 세계 이민자들과 유색인종의 피난처라는 이미지를 위협하고 있다(Burns, Machado, Hellgren & Bodin 2007; Lindberg & Dahlstedt 2002; SOU 2005, 2006). 또한 거주지 분리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같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또는 제도적 요소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차이나 갈등 들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가끔 인종 문제나 스웨덴 백인 인구에 대한 비백인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스웨덴 학계에서는 다른 외양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매우 꺼려하였다. 이 연구는 현대 스웨덴 사회, 특히 스웨덴 입양 공동체에서의 인종 문제에 대한 침묵에 도전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입양, 차별,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연구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이 프로젝트는 20 명의 해외입양인과 해외입양을 한 8 명의 양부모와의 심도 깊은 인터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연구는 입양인과 입양가족이 유색인종의 외모로 의해 차별 받는 경우를 조사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그룹이라고 간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5 만 명의 스웨덴 국가간 입양인들은 민족문화적으로 완전한 스웨덴인이며, 무엇보다도 부유한 스웨덴 출신 백인들과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비서구 국가 출신 1 세대 이주민 그룹이다. 이는 이들의 양부모 그룹 중 많은 이들이 교육과 소득 수준에서 스웨덴 사회의 상류층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해외입양부모 중 50%가 상류층, 40%가 중산층, 10% 미만이 노동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된다(Reuterberg & Hansen 2001). 즉, 입양인들은 민족성과 국민성에 관한 기존 정의에 따라 완전하게 스웨덴인 또는 서양인이며, 동시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스웨덴 사회 내 상위계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인종만이 다르게 대우받을 경우에 있어 유일한 변수이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인종차별 문제의 인식에 대한 입양부모의 역할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입양 부모 본인들과 가족이나 입양한 자녀에 대한 인종차별 경험을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스웨덴 입양 연구가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적응이나 애착 문제에 집중해왔다면, 스웨덴 이민 연구는 스웨덴 인구 다수와 다른 민족문화를 가진 그룹에 대해 초점을 맞춰왔다. 따라서 스웨덴에 있는 유색 입양인들의 자기 서술을 바탕으로 한 몇몇 연구결과들을 제외하곤, 성인 입양인이나 입양한 가족들이 겪는 인종차별의 경험을 조사한 연구가 없다. (Hübinette 2007; Hübinette & Tigervall 2009) 이 연구에서는 스웨덴 입양 연구와 이민 연구를 조합하여 백인이 아닌 외보로 현대 스웨덴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그 실험적 자료로는 성인 입양인과 입양 부모의 차별에 대한 경험을 사용할 것이다.

연구분야 및 이론적 관점

지난 50 년 동안 총 5 만 명의 해외출생 아동들이 스웨덴으로

입양되면서 스웨덴은 전세계적으로 원주민 인구 대비 해외 입양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Hübinette 2003). 2000 년 기준, 25 세 이상의 스웨덴 입양인 인구 중 62%가 여성, 38%가 남성이었으며 입양인 여성의 51%, 남성의 39%가 한국인이었다(Rooth 2001). 2006 년에는 0-14 세 아동의 입양인 가운데 중국인이 지배적으로 많았으며 15-29 세의 입양인 중에서는 인도 출신, 30-44 세의 입양인의 출신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많았다(Bernhardtz & Klintefelt 2007). 중산층 및 상류층 스웨덴인이 입양부모로서 가장 많았으며 동양계 여아가 입양인 중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서양권에서 일반적인 해외입양의 양상으로, 잘 규제되는 생식 방법인 해외입양은 높은 교육수준에 고소득, 건강한 이성애 가정들이 입양하고, 1950 전 한국전 후 해외입양이 시작된 이래 아시아 지역이 항상 입양아의 주된 출신 대륙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서양국가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입양 연구도 전통적으로 심리학, 의학 및 사회학 이론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과 청소년 입양인의 입양부모와 가족에 대한 적응 및 애착 등에 관한 것이었다(Cederblad 2003, Lindblad 2004). 요약컨대, 주류 스웨덴 입양 연구는 성인보다 아동, 사회보다는 가정, 인종적 요소보다는 입양요소를 우선시했다. 따라서 스웨덴 입양연구는 입양인의 성인기 삶이나 유색인종으로서의 인생 경험 등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입양부모이거나 입양기관에 속해있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두 건의 예외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입양 부모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경우가 거의 없다(von Greiff 2004; Halldén1981).

그러나 최근 통계적으로 국가 내 모든 등록 거주민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스웨덴의 인구 등록제를 통하여 성인 입양인의 상황을 분석하는 양적 입양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들은 많은 성인 입양인들이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범죄 및 자살 행동에 있어 스웨덴 대다수 인구나 입양인과 동일한 국가에서 이주한 교민들에 비하여 낮은 정신 건강 수준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내렸다(von Borczyskowski, Hjern, Lindblad & Vinnerljung 2005; Hjern & Allebeck 2002; Hjern, Lindblad & Vinnerljung 2002). 사실 스웨덴

인구 중 그 어떤 집단도 성인 입양인 만큼 자살 시도율이 높은 집단은 없으며, 그 성공률은 주류 인구에 비해 4-5 배나 높다. 또한 인구 등록에 기초한 이런 양적 연구들은 성인 입양인들 중에 많은 수가 입양부모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재생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웨덴의 가장 혜택 받은 계층에서 자랐음에도 노동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수당 및 병가의 의존도도 높다(Carlberg & Nordin Jareno, 2007; Lindblad, Hjern & Vinnerljung, 2003, 2007; Rooth, 2001, 2002). 요약하자면, 대다수 스웨덴 국민이나 동일한 국가에서 온 비입양 이주민들에 비해 입양인들은 정신건강 수준이 낮으며, 이주민과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웨덴의 하층 계급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통계 결과에 대하여 주로 입양 전의 정신적 충격이나 친가족과의 이별, 유전적 결함, 인지 발달 저하 등을 원인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통계는 유색 인종 입양인에 대해 관례화되고 체계화된 차별의 결과라고 가정한다. 이는 최근 발표된 200 명의 한국계 입양인들을 대상을 한 설문을 통해서도 지적된 부분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차별에 대한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Schwekendiek, Kwon & Jung 2008). 또한 양적 연구들은 대다수 인구와는 반대로 형제들 중 첫째인 경우에도 유색 인종 입양인은 양부모의 친자녀인 백인 형제들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자 성인 입양인의 취업이 여자 입양인보다 더욱 어려워, 백인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룹이 여성인 것과는 반대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스웨덴 이민 연구에서는 국가간 입양이 국제 이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입양인들은 국제이민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입양인과 입양가족을 연구 주제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FAS 2003; Westin 1999). 이는 영미 학계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그곳에서는 국가간 입양을 국제결혼, 인신매매, 또는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은 아동의 이민과 마찬가지로 국제 이민으로 간주하고 있다(Lovelock 2000; Selman 2002). 스웨덴 이민 연구가 다수 민족과는

민족문화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다른 이민자와 소수자들을 주제로 삼으면서도 인종과 백인이 아닌 외모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의 입양 연구와 이민 연구는 사실 현재까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 이민에 대한 새로운 질적 연구가 유색인종 성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행되면서, 백인이 아닌 외모가 현대 스웨덴 사회에서의 일상적 차별에 있어 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Hällgren, 2005; Kalonaityté, Kawesa & Tedros, 2007; Kamali, 2005; Lundström, 2007; Motsieloa, 2003; de los Reyes, Molina & Mulinari, 2002; Sawyer, 2000, 2002; Schmauch, 2006). 본 연구는 성인 입양인의 현황을 다루는 새로운 양적 입양 연구와 인종차별을 다루는 새로운 질적 이민 연구를 연결시키려는 시도이며, 나아가 스웨덴 입양 연구에 있어 결여된 비판적 인종 및 백인 연구의 관점을 보충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논문은 2007 년에 실시한 20 명의 성인 입양인과 8 명의 입양부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스웨덴 입양사회 내에 있는 입양인 및 입양부모 기관, 잡지사, 신문사들을 통해 인터넷에 광고를 띄워 모집했다. 한가지 염두해두어야 할 사항은 피조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이 스웨덴 입양인들과 입양부모의 평균치를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양인 연구대상의 연령은 21-48 세였으며 10 명은 한국 출신이고 그 외에는 에티오피아(2), 스리랑카(1), 이란(1), 방글라데시(1), 콜롬비아(1), 칠레(2), 모로코(1), 도미니카공화국(1) 출신이다. 연구대상 입양부모는 인도, 중국, 태국, 한국, 콜롬비아로부터 입양한 0-35 세 사이의 자녀가 있었다. 인터뷰는 최소한의 형식만 갖춘 채 진행됐으며 피조사자들이 이야기한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나 직장, 공공장소와 사적 장소에서 겪었던 차별, 비 백인 그룹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나 이미지에 대한 태도, 스웨덴 사회와 문화에의 소속감, 차별의 경험에 대응하는 전략 등.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차별을 겪게 되는 경험들만을 연구 자료로 제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족성이나 인종, 정체성 등에 대한 사회구성학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탈식민주의 여성학 연구와 인종과 백인에 관한 비판연구에서 영감을 얻었다(Essed 1991; Essed & Goldberg 2001; Omi & Winant 1994). 이 관점은 스웨덴인다움과 백인다움 같은 개념은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며, 처음부터 근원적 핵심이나 진정한 본질이란 없다고 본다. 민족성이나 인종과 같은 개념 역시 항상 상대적이며 다른 역사적 권력관계와 구조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민족 및 인종 정체성은 항상 협상을 통하여 구성되고 있는 것이어서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최종의 무엇인가 또한 있을 수 없다. 입양인과 입양 부모의 경우를 보면, '인종'적 측면이라는 것은 단지 외모의 문제이다. 따라서 스웨덴 민족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살아가고 있는 어떤 입양인을 보고 스웨덴인이나 서양인이외의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민족과 민족 정체성보다는 인종과 인종차별이다. 즉, 다양한 신체와 외모가 특정한 스테레오타입이나 이미지, 또는 특정 지역이나 문화적 역사와 연관되는 행위와 과정인 것이다(Anthias & Yuval-Davis, 1992; Miles, 1989; Omi & Winant 1994). 반면에 민족 정체성과 인종차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언어나 문화, 종교와 같이 특정한 "민족적" 변수가 특정한 인종으로 읽혀지는 어떤 신체로 귀결되고, 이 인종은 또한 하나의 민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이론적 이해는 인종과 민족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관행과 과정이며, 인종과 민족이 순수한 본질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한다. 다르게 말하면, 민족이나 인종은 상속이나 소유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확정된다. 따라서 고정적이거나 불변의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항상 협상과 변모의 과정에 놓여 있다.

탈식민지 시대 이론을 보면, 인종차별에 대한 이미지나 과정은 유럽 국가들과 제국이 수립되던 19, 20 세기에 주로 성행한 과학적 지식 생산, 서구 근대성과 식민지성에서 기원한 것을 알 수 있다(Bhabha 1994; Said 1978, 1993; Spivak 1989, 1999). 하지만 탈식민지적 관점이나 인종비판이론을 스웨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명확하거나 자연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유럽 주변부에 위치한 왕국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발트해 지역이나 토착 소수민족인 사미족이 살고 있던 북쪽 지역 정도까지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Fur 2006). 한편으로 스웨덴이 유럽 밖의 세계를 처음 접한 것은 유럽 열강이 15 세기부터 전개해 20 세기 전반에 그 절정을 이루었던 식민지 사업 및 제국 정책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스웨덴인들은 서양인들이 비서양권과 그 사람들에 대해 품고 있는 환상과 상상력을 공유하고 있다. 스웨덴과 비서양권 세계와의 관계 전문가인 아케 홀름버그(Åke Holmberg)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1988, 1994): "식민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이미지들 속에 스웨덴 권력의 자리는 거의 없었다. 스웨덴인들은 그 영역에서 대개 추종자들이었으며, 타인에 의해 창조된 이미지를 수용할 뿐이었다. 이런 사실이 스웨덴이 가진 외부 세계의 이미지를 다르게, 보다 객관적이고 덜 편파적이게 만들어 주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관되게 아니오이다. 스웨덴 작가들은 이국적인 세계에 대한 유사한 관계 속에서 자신들을 유럽, 서양, 기독교, 백인종과 일치시켜 생각하였다 (Holmberg 1994 23)."[4]

본 연구에서는 비백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인터뷰 내용을 보여준다. 그 내용은 유색인종이 매우 눈에 띄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류사회의 스웨덴 백인들이 지배하는 공공의 공간에서 시작하여, 다른 지리적 공간에 따른 의미의 문맥화로, 사적인 공간에서의 고통스런 차별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결국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성인 입양인과 입양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 인종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자 범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스웨덴의 이미지가 반인종차별적이며 인종차별주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연구 자료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비 백인의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 스웨덴 사회의 일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공 공간에서의 인종차별

이사벨라: 콜롬비아에서 입양된 친구와 함께 상점에 갔는데 상점

주인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았죠. 한번은 그 친구, 또 다른 스웨덴 친구와 함께 코펜하겐에 가느라 세관을 통과하는데 그 콜롬비아 입양인 친구만 제지를 당했어요. 스웨덴 친구와 저는 별 문제 없이 통과했는데 말이죠. 돌아올 때는 스웨덴과 덴마크를 오가는 페리를 탔는데 국경의 다리에서 저도 저지당했어요. 하지만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해서 운전면허증을 따로 보여줄 필요는 없었죠.

민족문화적이나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다른 두 집단이지만, 입양인과 이민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받기 쉬운 부정적인 대우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두 집단의 큰 차이는 다수 백인 스웨덴인과 다른 하나의 차이 앞에 모두 무너진다. 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따라서 일상적인 인종차별의 가장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상점에서의 차별', '세관에서의 차별'들이 인터뷰 내용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방글라데시아에서 입양된 이사벨라는 상점에서 특별하게 감시를 받았고, 해외에 갔다가 스웨덴으로 귀국할 때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또한 세관 직원들은 어떠한 종류의 인종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는데, 이사벨라의 콜롬비아 입양인 친구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은 범죄자라는 일반적 이미지에 따라 세관에서 저지당하고 수색을 받았다. 이사벨라는 스웨덴에서의 경험을 미국과 영국을 방문했을 때와 비교하였는데, 그때는 세관원에게 스웨덴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이사벨라의 경험은 스웨덴 시민권자이며 완전하게 민족문화적으로 스웨덴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으로 백인이라는 점이 여전히 스웨덴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프레드릭: 전 여자친구와 그 친구들과 함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는 중이었어요. 저희 뒤에 나이 많은 스웨덴 남자분들이 '젠장, 깜둥이 자식'이라며, 속삭이지도 않고 꽤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혼자라는 걸 느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입양된 프레드릭은 현금인출기 사건같이 스웨덴

백인인 연인과 함께 있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채 당한 모욕과 괴롭힘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유색인으로서의 답답함을 토로하며, 그가 다른 백인 친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 조차 그러한 괴롭힘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백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일어나, 마치 유색인종이 백인들과 사교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이 더욱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입양인들에겐 그것이 정상인데 말이다. 특히 입양인이 배우자나 가족과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 이러한 인종차별을 당하게 되면 그 창피함이나 모욕감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안드레아: 꽤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것이 인종차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스웨덴 사람들이 이웃이었죠. 예를 들어 버스를 타면 제 옆에 앉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앉아있는 사람도 일어나죠! 그러면 나 냄새 안 나는데, 특별히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며 갸우뚱거리게 돼요. 때론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더군요. 제가 흑인이라서요. 숨기지도 않고 다 드러내죠.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은 제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강도 짓을 할까 봐 제가 지갑을 꼭 쥐어요. 슈퍼마켓에 가면 경비가 따라붙고요. 보석상에 가면 금붙이를 치워버려요.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대우는 대개 도시에 사는 입양인들이 겪게 된다. "거리 위의" 낯선 사람은 신호의 차이와 거리감을 주는 몸짓과 율동에 따라 적대적인 느낌을 준다. 콜롬비아에서 입양된 안드레아는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흑인과 폭력의 연관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담론은 미국의 대중 문화 산물을 통하여 스웨덴 사회에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아는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경험이 인종차별로 분류될 수 있을 지 의심스러워 했다. 다른 인터뷰 참가자들도 입양인, 입양부모 할 것 없이 이와 비슷한 의심을 표현했다. 이는 스웨덴인들의 인종문제에 대한 침묵의 한 표현으로, 부당한 처우가 단지 유색인종이라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물론, 안드레아의 의견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욕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것이다.

미아: 놀이터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제 아들들 피부가 약간 검은 편인데 동네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는걸 멀리에서 보면 이런 소리도 들어요. '피부 검은 애랑 같이 모래 놀이 하기 싫어.' 만일 아이들이 '분홍색 치마 입은 금발머리 여자아이랑 같이 놀기 싫어.'라는 말을 했다면 '놀이터에서는 사이 좋게 놀아야지.'라는 얘기가 연이어 들려왔을 거에요. 하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말해주는 어른들은 없죠. 하지만 제가 다가가면 그들은 저랑 아이의 연관성을 눈치채고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해요. '놀이터에서는 다 같이 노는 거야.'라고 말하고요. 참 흥미로운 상황이죠. '저 아이는 그냥 이민자 아이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인터뷰 중 입양부모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보통 자신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배타적인 취급을 받는 일이다. 두 아들을 인도에서 입양한 미아는 놀이터와 인종차별이라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단어를 조합해 '놀이터 차별대우'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유색인종 입양아동들은 놀이터나 모래밭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스웨덴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등을 가르쳐야 할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유색인종 아이들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그 아이가 해외에서 입양되어온 사실을 알아채게 되면 부모들은 갑자기 "정상적으로 행동"하며, 평등한 대우를 가르치는 민주주의 원칙은 재시동 및 설정된다. 이 놀이터 상황은 차별주의적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로도 볼 수 있다. 즉, 백인 아동/성인만이 모래밭/스웨덴 사회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유색인종의 아동/성인은 스웨덴인/관계당국에 의해 감시되고 배제된다. 하지만 유색인종이 입양부모/법적 문서를 통해 합법적인 스웨덴인이라 인정되면, 배제는 사라진다.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스웨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시 당하는 불쾌한 경험은 세관과 같은 다양한 기관이나 관계부처에 맞닥뜨릴 경우 더욱 심해진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여권을 제시해 스웨덴에 소속되어있음을 밝히고 나서야 세관을 통과했었다는 입양인들의 경험은 유색인종의 외모가 시민권보다 중시된 좋은 사례들이다.

본 연구에서 피조사자들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스웨덴 공공 영역에서 일상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인터뷰 발췌문들에서는 피조사자들의 보다 명확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피조사자들이 가장 혼하다고 이야기한 차별은 입양인의 국가적, 지역적, 민족적, 인종적 출신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입양인과 입양부모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응답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라고 여기지만, 다른 이들은 입양인들을 부유한 스웨덴인과 백인들로부터 배제시키는 가장 전형적이고도 미묘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입양인들과 입양가족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이 부유한 스웨덴인 집단에 함께 속해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입양인들이 차별 받은 경험을 되짚어보면서 인종차별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고민하기 때문에 반차별주의적인 양부모조차도 비백인의 외모로 인해 일어나는 인종차별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한다. 이들은 그 대신 '뿌리' 나 '혈연관계' 같은 부분으로 문제의 초점을 돌린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의 인터뷰들은 인종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기시 하는 스웨덴 사회와 인종이라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나라로서 스웨덴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다른 공간들의 의미

소피아: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스톡홀름으로 이사를 온 후 실제로 인종차별적 공격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톡홀름에서는 갑자기 자주, 한 달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전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라 이런 종류의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피조사자들이 경험하는 인종차별에는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혹은 민족문화적 인구 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사는 소도시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대·중도시의 거리 중,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의 수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소도시는 이민자나 소수인종에게 문제가 되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지만, 큰 도시라고 해서 관용이 베풀어 지는 곳은 아니다. 스웨덴의 수도와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스톡홀름과 괴텐스베르그 같은 대도시에서 스웨덴 사람들과 유색인종인 이민자들 간의 대립이 더 또렷할 수 있다. 입양인들의 다양한 삶의 여정과 각기 다른 공간에서 축적된 경험의 중요성은 한국에서 입양된 소피아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소피아는 모두가 그녀를 아는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이 말의 실제적 의미는 소피아가 제 3 세계에서 온 이민자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입양되어 왔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피아는 스톡홀름으로 이사를 한 후 좀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인종차별을 공공연히 받았다고 한다. 적어도 그녀가 기억하기론 말이다. 소피아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가장 심하게 차별을 한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어린 이들과 노인들은 동양계 성인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도 밝혀진 연령대의 집단이다(Lindbald & Signell 2008). 사실 어떤 언어적 공격이 수반될지 전혀 모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백인 스웨덴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물리적 존재만으로도 성인 입양인들에게는 스트레스와 두려움, 불안을 유발한다.

레베카: 한동안 스톡홀름 중심가에 살았는데, 전 그곳에 맞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유색인종은 전혀 없었고, 제가 너무 불안정해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적대적인 눈길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한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했죠.

인터뷰 당시 두 명을 제외한 모든 입양인 피조사자들은 인종별 주거 분리현상을 보이는 스웨덴의 중상위계층 백인들의 집중 거주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란에서 입양된 레베카는 백인 상류계층이 중심인 스톡홀름 중심가와 이민자들이 중심인 스톡홀름의 외곽, 두 군데에서의 생활을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도시 외곽 지역에서 더 안정과 편안함을 느꼈다. 레베카는 또한 자기 자신의 "불안정"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일지 모른다고 자책하며, 유색인종에 대한 부정적 대우를 해석하는 전형적인 입양인 피조사자들의 태도를 드러내었다. 그렇게 함으로서 레베카는 백인이 아닌 자신의 겉모습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며 살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입양 부모 피조사자들도 인종적 다양성을 가진 가족으로서 거주 지역을 정하는데 심사숙고 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회경제적 동질성과 네트워크가 지역의 인종적 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고, 실제로 백인 중심의 상류층 지역에 거주하였다.

오사: 아이들이 탁아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많은 다른 인종의 아이들이 있는 곳을 다행히 찾을 수 있었어요. 한 아이만 튀지 않고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잔인하지만, 아이들이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 너무 일찍 알아버렸거든요. 막내아들 노아는 피부색이 조금 짙은데, 탁아소 아이들이 서로의 피부색깔을 비교해서 가장 옅은 피부를 가진 아이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껏 이런 사실을 몰랐던 탁아소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 분들은 걱정스럽게 논의한 후 올바르게 대처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스웨덴으로 이민 온 어린이들이 자신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입양한 아이들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두 명의 아들을 입양한 오사의 가족은 아이들이 눈에 덜 띄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일부러 이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양한 인종과 섞여 살겠다는 오사의 결정은 아들들에게 피부색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소수인종 아이들로부터의 인종차별을 경험하게 했다. 스웨덴의 이민자 아이들은 어린 나이 때부터

인종계급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고, 이를 좀 더 잔인한 방법으로 입양아동들에게 전달한다. 이 때문에 입양아들은 백인 중심의 동질적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오히려 더 보호를 받는 것일 수 있다. 이민자 아동들이 이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인종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미아: 오스카가 네 살 때, 보모에게 보냈는데, 하루는 시장놀이를 하면서 누군가 오스카는 피부색이 짙다고 아무것도 구입하지 못하게 했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모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아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의 이런 인종차별적 행동은 어른들에게 충격이죠. 어린아이들은 주변의 세상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상하죠. 가끔은 유치원이나 학교 직원들이 지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어요. "오스카 피부는 응가 색이야"와 같은 말들을 예로 들 수 있죠.

카리나: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미아: 별 거 없어요. 아이들은 영리하고 어른들은 어른들 구역에 계속 있기 때문이죠. 특히 학교에서요. 예컨대, 운동장을 관리하는 학교 관계자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른들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넌 피부가 검으니까 내 파티에 못 와!"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죠. 어른들이 그런 말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니까요.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겪는 경험들에 관한 미아의 이야기는 스웨덴의 전반적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모습 뒤에, 사회의 가장 중심 기관인 학교에서 굴욕적인 발언과 따돌림이 유색인종 아이들을 향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 인종차별 반대운동과 유색인종을 향한 부정적 대우가 한 곳에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를 멈추고 대응해야 할 선생님들과 성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미아의 이야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가치들이 나란히 존재하고,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입양 부모로서 이에 관여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다층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알렉산더: 제가 10 살 때쯤 처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때 쿠르드인 남자아이가 저희 반에 들어왔었죠. 저는 우리 반에서 피부색이 짙은 유일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친구가 되어 돌봐주어야 했어요.

토비아스: 그건 누가 결정한 거죠?

알렉산더: 선생님께서요.

모든 입양인 피조사자들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다르게 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범인"으로 밝혀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책문서에 명백한 인종차별 반대기관으로 되어 있는 학교의 선생님과 관계자들도 그랬다는 것이다(Gruber 2007; Parszyk 1999; Saywer & Kamali 2006). 흔한 경험 중 하나는 출생국가나 인종적 외모에 상관없이 외국인 동급생과 연결되어진 경험이다. 스리랑카에서 입양된 알렉산더는 처음엔 의사소통조차도 불가능했던 쿠르드인 친구를 "돌봐주도록" 명령을 받았고, 칠레에서 입양된 아르비드는 두 명의 중국인 이민자 형제들을 "돌보도록" 선생님으로부터 지시 받았다. 이렇게 입양아들과 이민자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무리 지어 버리는 행동은 백인이 아닌 아이들이 출신국가나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의 "제 3 세계 집단"으로 매몰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이다.

미아: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 세네갈에서 온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산책하러 밖에 나가면 아이들은 짝을 지어 같이 걷곤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꼭 세네갈인인 하산과 오스카가 같이 걷게 돼요. 이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오스카가 결국 한 마디 했죠. "난 왜 하산하고만 같이 가야 해? 난 칼과 같이 가고 싶단 말이야!"라고요. 아이들은 무의식중에 피부색이 짙은 두 아이를 짝지어 버린 거죠.

몇몇 입양 부모들 역시 선생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입양아들과 이민자 아이들을 같이 분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외모만으로 아이들을 짝짓는 것은 평범하게 생기지 않은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유색인종의 아이들은 마치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듯 항상 같이 모이게 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행동이 실제로는 외모로 사람을 나누는 인종분리일 뿐이고, 홀로코스트 이전 유럽의 식민지와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던 차별적 분리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학교는 이러한 인종차별에 대해 교육하고 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학교 관계자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할 때는 한 아이가 외모가 비슷한 다른 아이와 짝지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보다 상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인종차별

오사: 노아는 피부색이 짙고, 또 햇볕에 쉽게 타서 스웨덴 사람의 눈에는 "불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잘 말씀드렸어요. 그런 얘기는 절대 참을 수 없고, 아이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요.

카리나: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이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오사: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스웨덴 사람"과 "외국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동네에 어머니 기준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외국인 가게에서 이것저것을 샀어."라고도 말씀하시곤 했죠. 그래서 전 어머니에게 같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입양 부모들과의 인터뷰에서 주로 나이 드신 친척 분들이 유색인종과 제 3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가족 내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예를 몇몇 들었다. 이런 인종차별적 생각과 태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족, 친구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까운 친척들일수록 이런 어려움은 더 심각해서, 입양 부모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오는 인종차별에 드러내놓고 대응할 때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족 간 접촉을 아예 기피해서 입양아동이 자라면서 그 친척들과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인종차별적 생각에 노출시켜 장기적으로 보다 해로운 영향을 아이에게 주기도 한다.

리니아: 전 항상 집에서 혼자였어요. TV 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만 하면 가족들은 "저것 봐, 한국이야." 라고 외쳤죠. 뭔가 한국에 대한 것이 떠오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마치 내가 처음에 못 알아듣기라도 했다는 듯 자꾸 강조했어요.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스웨덴에 처음 왔을 때 땅바닥에 앉아서 아래를 쳐다봤대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이 얘기는 한 수백 번쯤은 해 주신 것 같은데, 제 사촌이 "리니아가 꼭 자고 있는 것 같아."라고 했대요. 제 눈이 작아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항상 어머니를 즐겁게 하죠.

입양인들에게 인종차별은 공공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도 일어난다. 입양인 피조사자들은 자신들의 가족들과 배우자에게 그들의 외모가 항상 이야깃거리가 된다고 했다. 리니아가 한국에서 입양된 직후부터 백인이 아닌 자신의 외모가 자신의 가족들 사이에서 강조 되어왔다고 하며, 이를 일종의 괴롭힘으로 기억하는 것이 한 예이다. 리니아는 백인 상류층 중심인 스톡홀름 근교에서 자랐고, 양어머니께서 자신의 신체적으로 다른 점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들을 가까운 이웃 친구들에게 하셨다고 한다. 아시아계 아이의 엄마로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다른 동양아이들을 쳐다보기도 좋아하셨고, 백인들의 눈에 모든 동양인은 똑같이 생겼다는 잘 알려진 논리에 따라 "내 딸을 닮았네." 라고 생각하시곤 했다. 리니아는 가족

내에서의 이런 인종차별적 사고에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스톡홀름의 다른 동양인들과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녀가 겪는 사적 공간에서의 인종차별이 인종적 내재화와 자기혐오를 야기하며, 보다 장기적으로 그녀의 정신 건강에 해를 주었음은 분명해보인다.

백인이 아닌 스웨덴 사람 되기

사이먼: 제 생각에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저를 슬프게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스웨덴어 할 줄 아니?"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죠. 스웨덴의 작은 마을들에서 몇 번 일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의심을 많이 하다가 조금 지나면 "아, 이 사람은 스웨덴어를 할 줄 알고 스웨덴 이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요. 제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전엔 이민자라고 생각했다가 조금 지나면 재평가를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마다 일일이 저에 대해 설명해야 하니 힘들어요.

외모, 언어와 이름 사이에는 문화 속에 깊이 박혀 당연히 여겨지는 연관성이 있다. 백인들은 서양(인도유럽)언어를 구사하고, 서양이름, 주로 기독교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다. 사이먼은 한국인 입양인으로 언어, 이름, 인종에 관한 이런 연관성으로 인해 절망에 가까운 좌절을 겪는다. 이런 상황은 거의 매일 반복되며, 사이먼 역시 주로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많이 한다고 얘기한다. 사이먼은 몇몇 동질적인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매번 새로운 백인 스웨덴 인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조화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스웨덴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서양이름, 즉 기독교 이름을 가졌는지 말이다.

미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하는지, 아님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물어봐요.

카리나: 누가 그런 걸 물어보나요?

미아: 어른들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예전엔 제가 벵갈어를 잘 못해서 우린 스웨덴어를 사용한다고 대답하곤 했죠.

언어는 아마도 현대 스웨덴 사회나 다른 서양 국가들에서 가장 강력한 인종적, 국가적 표식일 것이다. 이는 인종적 사고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언어 연구의 중요성을 그 전제로 하며, 인도유럽어와 "아리아 말"이 가장 좋은 예이다(Renfrew 1990). 미아는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중상류층 사람들이 자기에게 남아시아에서 입양한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묻는다고 이야기한다. 몇몇 입양인 피조사자들은 가끔 사람들이 영어로 질문을 정신 없이 하고, 자기가 유창한 스웨덴어로 대답을 해도 상대방은 계속 영어로 질문을 한다고 얘기한다. 마치 백인이 아닌 사람이 완벽한 스웨덴사람처럼 행동할 때 신경적 차단막이 생기는 듯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웨덴이란 나라와 문화에 소속돼 있고, 스웨덴 시민권도 있고, 기독교 이름을 가졌고 스웨덴 가족에 완벽하게 흡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인들은 명백하게 매일 지속적인 인종차별을 받는다. 이는 백인이 아닌 집단은 특정 지역 출신으로, 특정한 인종,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등에 연관되어있고, 때로는 문화적, 정신적 특징과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개 인종과 민족을 분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외모는 거의 항상 특정 집단과 연관되고, 그 반대경우도 그렇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종, 민족 집단은 성별(sex)과 성벽에 따른 특성(gender)처럼 나누어질 수 없는 병렬항이며, 또한 "스웨덴스러움"이 백인다음과 밀접하게 연결된 특별한 스웨덴의 맥락에서 이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일상 속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결론

최근 양적인 입양 연구 조사결과 스웨덴의 다국적 입양인들의 정신건강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빈곤상태가 빈도 높게 발견되었다.

이런 걱정스런 결과를 백인과 인종에 관한 연구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는 노력 하에, 이 연구는 차별의 경험이 있는 20 명의 성인 입양인과 8 명의 입양 부모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과 인종적 사고, 이민자들과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인들을 포함한 유색인종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평범하지 않은 겉모습 때문에 차별을 겪는다. 이 조사는 입양인들의 백인이 아닌 신체는 백인 주류 스웨덴 인들과 교류하는 일상 속에서 계속 문제가 되며, 차별은 항상 사회경제적, 민족 문화적, 또는 국가적이나 언어적, 종교적 요소와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뿌리 박혀 있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인종의 이미지와 지리, 문화적 원인을 포함한 그들의 내적, 외적 특징이 공식 정책과 선언을 넘어서서 현대 스웨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양적 입양연구들이 보여주듯 취약한 성인 입양인들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이라는 요소가 스웨덴 입양 공동체와 입양 연구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상 속의 인종차별을 이해하고, "스웨덴인", "비-스웨덴인"을 구별 짓기 위해 백인이 아닌 겉모습이 점점 더 사용되어지는 현대 스웨덴 인종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종을 일종의 개념, 혹은 분류로서 스웨덴 이민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번역 : 이재영, 김정현

Works Cited

Anthias, Floya, and Nira Yuval-Davis. *Racialized boundaries. Race, nation, gender, colour and class and the anti-racist struggle*. London: Routledge, 1992. Print.

Bernhardtz, Lena, and Annika Klintefelt. "Det typiska adoptivbarnet". *Välfärd*, 7.2 (2007): 8-9. Print.

von Borczyskowski, Annika, Anders Hjern, Frank Lindblad, and Bo Vinnerljung. "Suicidal behaviour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dult adoptees: A Swedish cohort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1.2 (2006): 95-102. Print.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rint.

Burns, Tom. R., Nora Machado, Zenia Hellgren, Göran Bodin (Ed). *Makt, kultur och kontroll över invandrares livsvillkor: Multidimensionella perspektiv på strukturell diskriminering i Sverige*. Uppsala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2007. Print.

Carlberg, Margareta, and Karin Nordin Jareno (Ed.). *Internationellt adopterade i Sverige. Vad säger forskningen?* Stockholm: Gothia, 2007. Print.

Cederblad, Marianne. *Adoption - till vilket pris? Sammanställning av*

adoptionsforskning. Stockholm: Fritzes, 2003. Print.

Essed, Philomena. *Understanding everyday racism: An interdisciplinary theory*. Newbury Park: Sage, 1991. Print.

Essed, Philomena, and David Theo Goldberg (Ed.). *Race critical theories: Text and context*. Oxford: Blackwell, 2001. Print.

FAS. *An evaluation of Swedish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thnic relations (IMER) research 1995-2002*. Stockholm: FAS, 2003. Print.

Fur, Gunlög. *Colonialism in the margins. Cultural encounters in New Sweden and Lapland*. Leiden: Brill, 2006. Print.

von Greiff, Katarina. *Föräldrar till internationellt adopterade barn - uppfattningar och erfarenheter av föräldrarollen*. Danderyd: FoU Nordost, 2004. Print.

Gruber, Sabina. *Skolan gör skillnad: Etnicitet och institutionell praktik*. Linköping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and Welfare Studies, 2007. Print.

Halldén, Gunilla. *Adoption i ett konflikt- och utvecklingsperspektiv*. Stockholm University: Department of Pedagogy, 1981. Print.

Hjern, Anders, and Peter Allebeck. "Suicide in first- and second-generation immigrants in Sweden: A comparative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7.9 (2002): 423-429. Print.

Hjern, Anders, Frank Lindblad, and Bo Vinnerljung. "Suicide, psychiatric illness, and social maladjustment in intercountry adoptees in Sweden: A cohort study". *The Lancet* 360.9331 (2002): 443- 448. Print.

Holmberg, Åke. *Världen bortom västerlandet: Svensk syn på fjärran länder och folk från 1700-talet till första världskriget*. Göteborg: Kungl. Vetenskaps- och Vitterhets-Samhället, 1988. Print.

Holmberg, Åke. *Världen bortom västerlandet II: Den svenska omvärldsbilden under mellankrigstiden*. Göteborg: Kungl. Vetenskaps- och Vitterhets-Samhället, 1994. Print.

Hübinette, Tobias. "The adopted Koreans of Sweden and the Korean adoption issue." *Review of Korean Studies* 6.1 (2003): 251-266. Print.

Hübinette, Tobias. "Disembedded and free-floating bodies out-of-place

and out-of-control: Examining the borderline existence of adopted Koreans." *Adoption & Culture* 1.1 (2007): 129-162. Print.

Hübinette, Tobias, and Carina Tigervall. "When racism becomes individualised: Writing about experiences of racialisation among adult adoptees and adoptive parents of Sweden." *Complying with colonialism: Gender, race and ethnicity in the Nordic region*. Ed. Diana Mulinari, Salla Tuori, Suvi Keskinen & Sari Irni. Farnham: Ashgate, 2009. 119-135. Print.

Hällgren, Camilla. "Working harder to be the same'": Everyday racism among young men and women in Sweden". *Race, Ethnicity and Education* 8.3 (2005): 319-342. Print.

Schwekendiek, Daniel, Ji-Sung Kwon, and Aie-Ree Jung. *Survey on the status of overseas adopted Koreans and proposals for effective post-adoption services*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 Seoul: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Planning, 2008. Print.

Kalonaityté, Viktorija, Victoria Kawesa, and Adiam Tedros. *Upplevelser av diskriminering och rasism bland ungdomar med afrikansk bakgrund i Sverige*. Stockholm: Ombudsman against ethnic discrimination, 2007. Print.

Kamali, Masoud. *Sverige inifrån. Röster om etnisk diskriminering*. Stockholm: Fritzes, 2005. Print.

Lindberg, Ingemar, and Magnus Dahlstedt. *Det slutna folkhemmet. Om etniska klyftor och blågul självbild*. Stockholm: Atlas, 2002. Print.

Lindblad, Frank. *Adoption*. Lund: Studentlitteratur, 2004. Print.

Lindblad, Frank, Anders Hjern, and Bo Vinnerljung. "Intercountry adopted children as young adults – a Swedish cohort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3.2 (2003): 190-202. Print.

Lindblad, Frank, and Sonja Signell. "Degrading attitudes related to foreign appearance. Interviews with Swedish female adoptees from Asia". *Adoption & Fostering* 32.3 (2008): 46-59. Print.

Lovelock, Kirsten. "Intercountry adoption as a migratory practic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im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New Zealand in

the post W.W.II period."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4.3 (2000): 907–949. Print.

Lundström, Catrin. *Svenska latinas. Ras, klass och kön i svenskhetens geografi.* Gothenburg: Makadam, 2007. Print.

Miles, Robert. *Racism*. London: Routledge, 1989. Print.

Motsieloa, Viveca. *"Det måste vara någonting annat". En studie om barns upplevelser av rasism i vardagen.* Stockholm: Save the Children, 2003. Print.

Omi, Michael,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New York: Routledge, 1994. Print.

Parszyk, Ing-Marie. *En skola för andra. Minoritetselevers upplevelser av arbets- och livsvillkor i grundskolan*. Stockholm Institute of Education: Department of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Special Education, 1999. Print.

Renfrew, Colin. *Archeology and language: The puzzle of Indo-European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rint.

Reuterberg, Sven-Eric, and Michael Hansen. *Vilken betydelse har utländsk bakgrund för resultatet på högskoleprovet?* Stockholm: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 2001. Print.

de los Reyes, Paulina, Irene Molina, and Diana Mulinari. (Ed.). *Maktens (o)lika förklädnader: Kön, klass och etnicitet i det postkoloniala Sverige.* Stockholm: Atlas, 2002. Print.

de los Reyes, Paulina, and Mats Wingborg. *Vardagsdiskriminering och rasism*. Norrköping: Swedish Integration Board, 2002. Print.

Rooth, Dan-Olof. "Etnisk diskriminering och "Sverige-speficik" kunskap – vad vi kan lära från studier av adopterade och andra generationens invandrare". *Ekonomisk Debatt* 29.8 (2001): 535-546. Print.

Rooth, Dan-Olof. "Adopted children in the labour market – discrimination or unobserved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Migration* 40.1 (2002): 71-98. Print.

Said, Edward W.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8. Print.

Said, Edward. W.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1993. Print.

Sawyer, Lena. *Black and Swedish: Racialization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belonging in Stockholm, Sweden*. University of Michigan: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2000. Print.

Sawyer, Lena. "Routings: Race, African diasporas, and Swedish belonging". *Transforming Anthropology* 11.1 (2002): 13-35. Print.

Sawyer, Lena, and Masoud Kamali (Ed.). *Utbildningen dilemma. Demokratiska ideal och andrafierande praxis*. Stockholm: Fritzes, 2006. Print.

Schmauch, Ulrika. *Den osynliga vardagsrasismens realitet*. Umeå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2006. Print.

Schough, Katarina. *Hyberboré. Föreställningen om Sveriges plats i världen*. Stockholm: Carlsson, 2008. Print.

Selman, Peter.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new millennium: the 'quiet migration' revisited." *Population Research & Policy Review* 3.21 (2002): 205–222. Print.

SOU. *Det blågula glashuset: Strukturell diskriminering i Sverige*. Stockholm: Fritzes, 2005. Print.

SOU. *Integrationens svarta bok: Agenda för jämlikhet och social sammanhållning*. Stockholm: Fritzes, 2006. Print.

Spivak, Gayatri Chakravorty.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Methuens, 1987. Print.

Spivak, Gayatri Chakravorty.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Print.

Westin, Charles. *Mångfald, integration, rasism och andra ord: Ett lexikon över begrepp inom IMER*. Stockholm: Swedish Board of Health and Welfare, 1999. Print.